“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

■ 이종윤 원로목사

에쿠아도르(Ecuador)에 사는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의 부인이 그가 선교지에 가기 전에 크리스천이라면 규격있는 옷을 입고 품위있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적도 부근에 위치한 에쿠아도르에 가보니 거의 벌거벗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이 이방인이 되었음을 알았다는 글을 순종의 자유라는 책에서 그녀는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장발족이나 미니스커트 입은 이들을 거리에서 단속을 하던 때가 있었다. 인간적 규범이나 규칙이 시공의 제약을 받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원리는 우리의 난해한 상황해석에 도움을 줄 것이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자유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도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줄을 믿노라” 했다. 초대교회의 율법주의에 대한 논쟁에서 은혜의 승리를 외친 것이다. 규칙이나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그 문제에 대한 잘못 적용된 법에 다른 대항이 생겨 결국 문제는 계속 엉키게 된다. 법정 판결이나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 공동체는 깨지거나 흠집이 커진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당신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은혜를 더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 과오는 논리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법으로 따지면 감정의 고리만 깊어간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은 삶은 거룩에로 인도됨으로 우리의 애매모호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규정과 규례를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규제 개혁은 규제 합리화

규제 개혁은 법률 개혁의 하나로서 보통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규제에 대한 개혁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규제 개혁을 규제 합리화라고 정의한다. 규제만능주의에 매몰된 우리나라를 소생시키기 위해 최근 청와대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경제규제 철폐를 추진하고 있으나 상황은 역행적 방향으로 달려간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두 종류의 결혼생활

첫 번째 경우는 법으로 사는 가정이다. 다른 가정은 사랑과 신뢰로 사는 가정이 있다. 전자는 의무 이상을 피차 하지 않는다. 후자는 서로 희생하고 돕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모든 것을 법 안에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했다 해서 하나님이 죄까지 허락하신 것은 아니다. 가령 음식물 중에도 몸에는 좋으나 정신건강을 해치는 것이 있다. 어떤 것은 정신을 진정시키나 몸엔 크게 해로운 것이 있다. 이처럼 음식, 성(sex), 약, 집, 심지어 자기 몸을 포함한 모든 것이 크리스천에게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에 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즉 얽매이면 그것들의 종이 되기 때문이라 한 것이다.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저해한다면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될 수 없다” 한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성장을 도모시킬 수 있는 덕을 세워야 한다. 타인의 말이나 생각하는 것에 당신의 행동기준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당신은 위선자나 미친 사람이 될 것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이에게 해를 주지 않기 위해 포기할 때, 덕을 세우는 경우가 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다. 내게 있는 자유는 남을 돕는 일에 사용되어야지 다른 이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로 인해 어떤 이가 신앙 열심이나 소득에 손해를 보았다면 성경에서는 연자맷돌을 목에 매고 물에 빠져야 할 것이라 가르친다. 크리스천은 자기 일뿐 아니라 남에게 덕을 세워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잘못된 유대주의·완전주의·자유방임주의 사상을 버리고

크리스천은 모든 진리(과학, 학문), 모든 명예(윤리), 모든 정당한 것(법률), 모든 순수한 것(도덕), 모든 사랑할 만한 것(예술, 개인적 매력)을 항상 생각하되 이 모든 희랍문화의 이상들을 그것이 옳다면 따라야 하고 이를 하나님을 위해 성화시킬 의무가 있다. 잘못된 유대주의(율법주의), 완전주의, 자유방임주의 사상은 따르지 말고 현실을 끌어올릴 수 있는 행동하는 이상주의자인 선지자처럼 살아야 한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종교적, 경제적 기득권을 갖고 습관과 윤리적 독선에 빠진 우리 사회에 주신 메세지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자랑한 유대인에게처럼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과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내가 남을 판단한 그 기준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욕을 듣게 되지 않도록 규제개혁을 해야 하지만 알찬, 신령한, 내실있는 참유대인 되어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인이 되자.

-한국장로신문 [1434호] 2014년 11월 1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 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Sister Lumie Hwang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Phil 3:6-9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The Peace of God”	Pastor
* Hymn	484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선 교 사 강아곱·주한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비컷잔(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아 망, 탕, 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싼다, 사우, 키옴, 랑, 흐라, 라비, 벤, 비에, 마옹,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영일, 김덕수(군선교)

제28권 제1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11:40) 2018년 1월7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이름을 예수라 하라 "

■ 마 1:1, 21

새해에는 우리 모두 전심으로 국가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헌신과 섬김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살리는 일에 분명한 기여를 할 것이므로 우리는 올 한 해 더 뜨거운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서가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 졌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은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약을 마감하는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말라기 4:1-6의 말씀은 “앞으로 두렵고 불같은 날이 임하실 것이다,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날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날이 임하실 것이고 그 날에는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족보를 마태복음에서 자세히 밝혀주므로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나 절망감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휩싸인다면 성경이 내 마음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우리들 마음과 영혼에 충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진실하게 역사하시면서, 동일한 힘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하나님만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마 1:23).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당시 의학 수준으로 출산하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 인지의 성별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성경은 “아들을 낳을지니”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Immanuel)” 이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거 하시고 계시며 사람과 불가분적 관계가 되시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는 점차 십자가의 죽은 자로 소멸됨으로 인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변화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구원주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마 21:21).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2. 예수의 족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꼽히고 있으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된 유일무일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다윗의 혈통인 왕족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그리스도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말라기서 4:5에서 “선지자 엘리아를 네게 보내리니”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을 의미하며 마태복음 11장 13~14에서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아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확실하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족보를 자세히 밝혀주는 것은 구약과 신약성경을 연결하는데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맺는 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롬 15:4).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 우리는 2018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이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날이며, 또한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은 말씀과 기도와 성도간의 교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울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한 해 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김진섭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Ⅰ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최형열 장로
Ⅱ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차도훈 장로
Ⅲ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노문환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사 60:1-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2(6)·····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93(새해 1)···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36(36)···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창17:7-9, 마9:35, 요3:16-17···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이종윤 목사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거룩한교회, 다시 세상속으로···	이종윤 목사
성찬식 Holy Communion	집 례 자
* 찬 송 Hymn ·····210(24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묵 도	다 함 께
성 시 ····· 사 55:2-3 ·····	인 도 자
찬 송 ····· 433(490) ·····	다 함 께
기 도	차영도 집사
성 경 ····· 마 4:1-4 ·····	인 도 자
순결서약식	이종윤 목사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떡과 말씀" ·····	설 교 자
* 찬 송 ····· 588(307) ·····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김인숙 권사
성 경 ····· 막 4:9-11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혜원2

설 교 ·····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Ⅰ부								
수요Ⅱ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지난주 성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 1:21)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1. 신앙강좌부 개강 / 7일(주) 오후12시40분 웨스트민스터홀(101호)
2. 비전2020 기도회 / 7일(주) 오후3시30분 802호
3. 공동의회 / 7일(주) 찬양예배 후에 본당에서 2017년 결산 및 2018년 예산 승인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4. 스데반회 1월 월례회 / 13일(토) 오후3시 701호, 702호

◆ 알 림

1. 1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6시
4. 602호 예배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5. 603호 예배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예배
   에바다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예배
    디아스포라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신년감사예배 / 우리교회는 오늘 신년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주일예배 시간에는 성찬예식을 거행합니다.
13. 2018 순결서약식 / 2018년 순결서약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열립니다.
14. 2018년 농어촌100교회 운동, 비전2020운동,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 후원신청 / 2018년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돕는 농어촌 100교회 운동과 민족의 75%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국군장병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전2020운동,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선교사를 위한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 후원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후원하실 성도님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 세례 신청 안내 / 2018년 첫 세례가 2월18일(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신청은 사무국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세례 준비반(010-7743-3223)로 문의바랍니다
16.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김동준(내과), 노선균(흉부외과)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노제현(안과), 공민호(신경외과) 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7.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18. 안전요원 임명 / 강남소방서의 소방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권고에 의거(2017.12.28)
    당회는 다음과 같이 안전요원을 임명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전요원: 최임수 장윤기 박명철 한상준 안홍희 백도환 이종형 임광호 김혜언 장상국 김승록 김시환(집사12명) 김선영1 송미령 백영자 남태영 남태순 박정자 정미연 허숙 이정연1 이영희1 이봉선 조미영 정경자 최종희(권사 14명)

◆ 장 례

1. 故 김월주 권사 (11교구 이용성 집사의 모친, 이난희 권사의 시모) / 12월23일(토) 별세, 25일(월) 천국환송예배
2. 故 유병옥 권사 (9교구 이남성 집사 모친, 최영란 권사 시모), (이선주 집사 조모, 김도연 집사 처조모) / 1월2일(화) 별세, 4일(목) 천국환송예배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737명	264명	244명	1,245명	154명
성탄축하감사예배: 921명		**송구영신예배**: 856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2/31)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2월 31일	헌금	54,336,300	
"	성례비		102,000
	특별예배비		1,000,000
"	찬양대사례,운영비		7,991,500
	교회학교운영비		1,446,000
"	행사비		812,000
	경조비		650,000
	출판비		390,000
"	지원교회		6,000,000
	통신비		821,610
	차량유지비		325,100
	소모품비		1,489,700
	복리후생비		94,000
	수도광열비		4,966,510
	세금과공과		1,297,820
	환경유지비		772,000
	수선유지비		3,123,920
"	식당운영비		1,082,200
"	합 계	54,336,300	32,364,360